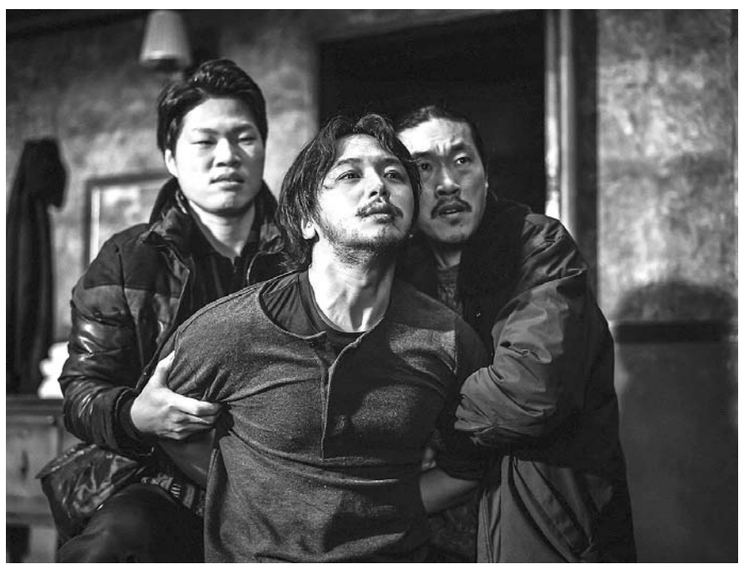
"멋있어 보이기보다 절박함 드러내려…"

영화 '보이스'·변요한 범죄 본거지 잠입 전직 형사역
"영화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 알리고 싶었다"


영화 '보이스'에서 전직 형사 서준역을 열연한 배우 변요한. 연합뉴스

"피해자의 절박한 몸부림을 생각했어요. 중요하게 여긴 건 '멋있지 않기'였죠. 멋있지 않고 절박하게 가자. 이런 마음으로 연기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룬 영화 '보이스'의 변요한은 13일 화상 인터뷰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맨몸 액션을 선보인 배경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영화는 부산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전직 경찰 서준(변요한)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덫에 걸린 아내와 동료들의 빼앗긴 돈을 되찾기 위해 중국에 있는 본거지에 잠입하는 이야기다.

변요한이 분한 서준은 과거 마약수사대에서 잘 나가던 경찰이지만 현재는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보이스피싱의 본거지인 중국 콜센터를 직접 찾아가게 된 데는 피해자들의 절박함이 깔려있다. 어찌 보면 무모한 서준의 행동을 변요한은 '희망'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런 사건이 있다면 서준을 응원할지, 의심할지 고민했다, 무모하게 보일수도 있지만, 현실에 이런 사람이 없으면 너무 슬플 것 같다"며 "영화로 표현할 수 있는 꿈과 희망 사항이라고 생각했다. 현실에서도 더 힘들게 피해자를 위해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변요한은 신분을 숨기고 콜센터에 잠입하기까지 건물 사이를 뛰어다니며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구르고, 조직원들을 속이기 위해 일방적인 구타를 버텨낸다. 콜센터에서도 비좁은 통풍구를 기어 다니고, 수세에 몰린 채 여러 조직원과 홀로 몸싸움을 벌인다.

영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었다는 그는 "'본 아이덴티티' 같이 (합이 맞아) 떨어지는 시스템 액션이 아니라 몸으로 피해자를 표현하는 진흙탕 액션이었다"며 "내가 몸을 사리지 않고 움직이는 만큼 절박함이 묻어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웬만하면 대역을 쓰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1년 영화 '토요근무'로 데뷔한 변요한은 올해로 11년차 연기자다. 드라마 '미생', '미스터 션샤인' 등에서는 능글맞은 매력을, 영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에서는 애절한 연인, '자산어보'에서는 우직한 청년으로, 작품마다 다양한 매력을 더하고 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한 그는 작품을 선택할 때 흥행 공식 등을 따지지 않는다고 했다. 배우로서 인기나 흥행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여기에 얽매이고 싶지는 않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BTS, 미국 MTV 어워즈 3년 연속 수상

총 7개 부문 후보 올라
올해의 그룹 등 3관왕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음악시상식인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MTV Video Music Awards·VMA)에서 '올해의 그룹'(Group of the Year)을 포함해 3관왕에 올랐다.

MTV 등에 따르면 BTS는 한국시간 13일 오전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의 바클레이스센터에서 열린 VMA 시상식에서 '올해의 그룹'과 '베스트 K팝', '송 오브 더 서머' 등 3개 부문 수상자로 발표됐다.

이들은 올리비아 로드리고, 릴 나스 엑스와 공동으로 올해 VMA 최다관왕(3개) 기록을 세웠다.

'올해의 그룹' 부문에서는 3년 연속 트로피를 안았다. 이 부문은 지난해까지 '베스트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시상이 이뤄졌다.

BTS는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수상 소감을 보내 팬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매분 매초 느낀다"고 감사를 전했다.

'올해의 그룹'에선 BTS와 블랙핑크, CNCO, 실크 소닉, 마룬5, 푸 파이터스, 조나스 브라더스, 트웬티 원 파일럿츠 등 쟁쟁한 그룹들이 후보로 경합했다. 투표로 후보를 좁힌 '파이널 라운드' 최종 2팀에는 BTS와 블랙핑크가 올라 K팝 팬들의 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지난 5월 발표한 히트곡 '버터'로 '베스트 K팝' 부문에서도 3년 연속 수상자가 됐고 '송 오브 더 서머' 트로피도 획득했다.

BTS는 올해 VMA에서 이들 세 부문에 더해 '올해의 노래', '베스트 팝', '베스트안무', '베스트 편집'(Best Editing) 등 총 7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자체 최다 노미네이트 기록을 세운 바 있다.

VMA는 MTV가 개최하는 미국의 유명 음악 시상식으로 매년 팝스타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BTS는 2019년에 처음 VMA 후보로 올라 2관왕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이곳에서 '다이너마이트' 첫 무대를 공개하고 총 4관왕을 거머쥐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올해는 공연자로는 참여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오윤희 죽음 헛되진 않아"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3'
배우 유진 종영 소감 밝혀

"살다가 처음 먹어보는, 굉장히 맛있는 맛이었어요. 오래 기억에 남고 또 먹고 싶을 거예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장장 11개월간 상류사회 입성을 향해 질주하는 여자 오윤희로 살았던 배우 유진(본명 김유진·40·사진)이 SBS TV 드라마 '펜트하우스' 종영 후 후련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을 나타냈다.

최근 화상으로 만난 유진은 "오윤희는 나한테도 애증의 존재로 남을 것 같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산 캐릭터였다. 그를 이해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고, 파고드느라 힘들었지만 만나서 참 좋았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오윤희는 세 시즌 안에서 가장 크게 변했고, 굴곡도 심했다. 딸 배로나(김현수 분)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오윤희는 결국 죽음으로 장렬하게 퇴장했다. 물론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많았던 작품이었기에 마지막까지 그의 생존을 믿는 팬들도 많았다.

이에 유진은 "그만큼 사랑받고 있다는 뜻이라 재밌다. 하윤철(윤종훈)이 최후의순간 '사랑했다 윤희야'가 아니라 '사랑했다 (천)서진(김소연)아'이랬으면 관에서 나왔을 것 같다"고 웃으며 "둘 다 죽은 새드 엔딩이 아쉽지만 저세상에서 둘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죽어서 아쉬운 면이 있죠. 천서진과 주단태(엄기준)가 처단되는 것도 못 봤고요. 하지만 삶이 그런 것 아닌가요? 생각보다 일찍 죽었는데 그래도 헛된 죽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죽고 나서는 시청자 입장으로 작품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또 죽었어도 계속 회상 장면으로 나왔잖아요. 잘 죽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웃음)"

유진은 이어 "윤희는 감정 기복도 굉장히 심하고 시즌마다 확확 변해서 대본을 받으며 가장 먼저 놀랐고, 적응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펜트하우스를 차지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윤희는 유진으로서 이해 안 가는 부분들도 많았어요. 특히 민설아(조수민)를 죽였다는 설정 자체가 설득되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린 시절 천서진과 대립했던 이야기부터 나왔으니 윤희가 살아왔던 삶을 많이 상상하며 연기했죠.

나중에는 '오윤희화'가 돼서 '오윤희라면 이럴 수 있을 거야'라고 설득이 되더라고요. 또 실제 딸이 있는 엄마로서 그 부분은 이해하기 쉬웠어요. 윤희가 좋은 모성애의 표본은 절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 하나는 이해할 수 있었죠."

'펜트하우스'는 시즌3 들어 다소 하향 곡선을 그리긴 했지만 시즌2에서 시청률이 30%에 근접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유진은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 인기를 가장 실감한 순간은 어린 친구들이 '오윤희다'라고 알아볼 때였다. 초등학생까지 오윤희를 알아보니 신기했다"며 "오랜 공백 끝에 출연한 작품이 큰 사랑을 받아 감사하다"고 웃었다. 연합뉴스

그룹 2PM 일본 신보 '위드 미 어게인' 콘셉트 사진. 연합뉴스

2PM 일본 '엠스테' 완전체로 뭉쳤다

일본 앨범 '위드 미 어게인'

그룹 2PM이 일본 유명 음악 방송 '뮤직 스테이션'(엠스테)에 10년 만에 완전체로 출연했다.

13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2PM은 지난 10일 TV 아사히에서 방영한 이 프로그램에서 일본 새 미니앨범 '위드 미 어게인'(WITH ME AGAIN) 타이틀곡 '보쿠토 마타' 무대를 선보였다.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이들은 군무와 함께 안정적인 라이브로 무대를 소화했다.

2PM은 오는 29일 5년 만의 일본 앨범 '위드 미 어게인'으로 현지 팬들을 찾아간다. 한국 정규 7집 '머스트'(MUST) 타이틀곡 '해야 해' 등 일본어 버전 곡과 '바이 마이 사이드'(By My Side), '우라하라'(URAHARA) 등 오리지널 곡이 담긴다.

타이틀곡 '보쿠토 마타'는 도입부의 휘파람 소리와 강렬한 사운드가 특징인 노래로 준케이가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지난 6월 복귀 후 발표한 '머스트'도 일본 최대 레코드숍인 타워레코드에서 일간, 주간 판매량 1위를 석권하며 건재를 알렸다. 연합뉴스

14(화)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20 팔도밥상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속아도 꿈결(재)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경찰수업(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8:50 두 번째 남편(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1:40 이 맛에 산다 스페셜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아모르파티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숲속 배달부 빙빙 8:00 딩동댕 유치원 8:3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9:40 우리집 유치원 12:10 바닷가 사람들 13:00 일단 해봐요 15:25 클래스e 16:00 마샤와 곰 16:30 딩동댕 유치원 18:00 생방송 방과 후 뚠뚠 19:50 극한직업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13: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2 14:3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외교·통일·안보 분야 16:00 사사건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5 생생정보 스페셜 12:55 다큐멘터리 3일(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브레드 이발소(재) 15:30 TV 유치원 16: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6:50 백종원 클라쓰(재)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크리켓팡 12:50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13: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이 맛에 산다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아무튼 출근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2:50 신발 벗고 돌싱포맨(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네모세모(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행복설계 알짜배기	**제주 CBS FM 93.3㎒ 90.9㎒**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창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 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판승부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보물섬 20:30 속아도 꿈결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역사저널 그날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빨강 구두 20:30 노래가 좋아 21:30 경찰수업 22:40 옥탑방의 문제아들	18:05 테마기행 길 19:05 두 번째 남편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아무튼 출근 22:30 특집 100분 토론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2:00 홍천기 23:10 신발 벗고 돌싱포맨	**KCTV** 7:00 KCTV 뉴스 8:00 세계의 99밥상 8:30 톡톡TV닥터 9:00 KCTV 뉴스 9:30 챌린지 퀴즈챔프 13:10 머스트 잇 혼자라도 괜찮아 14:00 세계의 99밥상 15:10 UHD 제주산책 15:20 챌린지 퀴즈챔프 17:00 KCTV 뉴스 17:40 KCTV 시청자세상 18:30 톡톡TV닥터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 서귀포시 FM 105.9㎒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14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자주 만남을 갖는 것도 좋다. 48년 만남이나 자녀가 찾아오니 마음이 기쁘다. 60년 계약 매매 등에 관한 일이 생기고 수익이 생긴다. 72년 내일보다 오늘 현실이 더 중요하니 변동하지 마라. 84년 직장인은 변동을 주고 싶기도 하고 이직운이 있기도 하다.

37년 생각과 상상으로 인한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룬다. 49년 화목이 필요하고 대인관계를 중시하면 신뢰를 얻는다. 61년 행사나 단체모임에 참여하니 술은 자제. 73년 확장이나 이전은 보류하고, 무리한 투자는 금물. 소득없는 바쁜 일이 생긴다. 85년 새로운 기회를 접하니 주위 사람과 상의해 길을 모색하라.

38년 분주하며 자녀문제 또는 이사문제가 있다. 50년 가족 또는 부부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과격한 언행 주의. 62년 활동성이 늘어나며 바쁘고 분주하다. 부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74년 경쟁 속에 스트레스가 쌓이나 적응하라. 86년 할 일이 생기고 나를 인정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39년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 일이 풀린다. 51년 생각은 많은데 결정하는 데 망설인다. 모임이 있으면 참석, 술은 주량만큼만. 63년 상대방과 경쟁 시 미워하는 마음보다 선의에 경쟁을 하라. 75년 직장인에게는 호운이 오고 자영업은 휴식이 필요하다. 87년 신속한 결정은 인정을 받고 이익을 준다.

40년 함께 의논할 일이 있으면 주변 또는 자녀와 상의하면 좋다. 52년 자녀를 위한 일이나 변동문제 금전문제로 가정에서 불화 발생. 64년 직장변동수가 있거나 부모와 마찰이 생긴다. 76년 직장인은 명예 또는 상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소식을 듣는다. 88년 계획한 일에 차질이 오니 다음으로 미뤄라.

41년 돈문제로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 53년 부하직원이나 자식문제로 고민. 스트레스를 받는다. 65년 친구나 형제자매의 도움으로 일거리가 생기고 재물운이 좋다. 77년 가정에서 논쟁이, 미혼자는 이성간 불화. 89년 이성이 찾아오고 교제를 원한다. 미팅이나 소개팅 상대가 미흡.

42년 자녀 일이 원만하지 않아 고민. 자녀문제로 자금 지출. 54년 형제자매 간에 문제가 생기며 구설이 따르고 다툼이 있다. 66년 윗분이나 부모님의 소식을 접한다. 78년 취업이나 직장에 관한 소식이 있거나 이성 만남이 있다. 90년 진퇴양난의 입장이 오면 주변사람과 상의해 일을 해결하는게 좋다.

43년 가까울수록 예의와 신용이 중요. 친하다고 막말을 하면 신뢰가 추락. 55년 몸이 쇠약해지고 질환이 올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것. 67년 문서관련 시비나 구설이 있으니 계약은 미루고 심사숙고. 79년 직장이나 업무관련 구설수가 있으니 주의. 가정에서 언쟁 다툼. 91년 문서에 이득이 있고 초대받을 일이 있다.

44년 동상이몽이라 생각이 다른 가운데 분쟁 소지가 염려된다. 56년 문서 매매에 이득이 있다. 소개·중매·계약 길. 68년 모임에 과음이나 언행주의. 실언이나 관재구설에 후회를 한다. 80년 무리한 탐재성향으로 정신적 고통과 손재수를 가져온다. 이성교제에는 매너가 필요. 92년 나를 필요로 하면 도와줘라.

45년 자식의 일로 고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57년 갑작스런 외출이 있을 수 있으며, 분실수 우려. 문단속 철저. 69년 신경이 예민해 질 수 있으며, 스트레스 및 안전사고 주의. 조기 귀가. 81년 친구 또는 이웃과 언쟁이 생기니 먼저 배려하라. 93년 의논할 일이 있으면 친구 또는 주변사람의 도움이 크다.

46년 자녀나 가족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근심이 생긴다. 58년 관재구설 시비수 조심. 운전 교통사고 주의. 70년 직장이나 업무에서 인정받고 승진운이나 가정에서는 부부애정에 적신호. 82년 양보다 질이 우선시 되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94년 마음을 호탕하게 갖자. 짜증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47년 생각은 많고 불면증으로 밤이 무섭다. 마음의 안정과 내 건강이 우선. 59년 욱하는 다혈질 성격은 고혈압 등 혈관 질환을 부를 수 있다. 취미활동 필요. 71년 아버지와 의견다툼, 처와 불협화음이 있다. 83년 성과가 기대 이하이고 하자가 발생하니 꼼꼼히 체크하라. 95년 주변의 도움으로 수입이 생기고 건강 회복.